

민주, 광주·전남 현역 의원 물갈이 폭 커지나

공관위, 하위 20%에 이어 지역민 대상 교체지수 여론조사 중
현역 의원 물갈이 대상 파악하기 위한 사전 조사 여부에 촉각

단독 보도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가 4·10 총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을 앞두고 광주·전남지역 현역 의원만을 대상으로 한 '재지 지 여부'와 교체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를 진행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2일부터 진행될 예비후보자 면접과 오는 6일 예정된 컷오프 발표를 앞두고 현역 의원들만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인 만큼 상대 후보 진영에서 여론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반면,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번 여론조사를 놓고 일부 선거구의 현역 의원들을 '찍어내기' 위한 것으로, 광주·전남지역 현역 의원들의 물갈이 폭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31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선출직 평가 하위 20%에 해당하는 31명 의원들에게 개별 통보를 시작할 예정인데다, 광주·전남지역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한 '재지 지'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 일부와 경기 일부 지역 선거구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조사의 질문 내용은 일부 선거구별로 다른 것지만, 주요 질문은 오는 4·10 총선에서 현역 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재지 지 여부였다.

광주지역 한 선거구에서는 지지정당을 묻는 질문에 이어 "이 지역 000 국회의원을 계속 지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라는 질문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지역 한 선거구에서는 총선 때 투표를 할지 여부를 묻는 질문과 함께 "이번 총선에서 이 지역 000 국회의원이 한번 더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좋겠습니까?"라는 질문이 이어졌다.

이번 여론조사는 앞서 선거구별로 진행됐던 후보자 적합도 여론조사와 별개로 현역 의원에 대한 '재지 지 또는 교체' 여부를 묻는 질문으로만 진행돼 '현역 물갈이'를 위한 신호탄이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민주당 후보 경선 이래 현역 의원 재지 지

여부 여론조사는 처음 있는 일여서, 공관위가 이번 총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 물갈이를 위한 기준 마련을 위해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지역 현역 의원들의 긴장감은 커지고 있고, 이번 여론조사에 대한 배경 파악을 하느라 분주한 모양새다.

하지만, 현역 의원의 재지 지 여부 묻는 여론조사는 경선에 나서는 상대 예비후보들이 있는 상황에서 현역 의원들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평가다.

광주지역 한 국회의원은 "선거구별로 현역 의원과 상대할 경선 예비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조직을 동원해 여론조사에 참여할 경우 여론이 크게 왜곡될 수밖에 없다"면서 "일부 예비후보들은 대량으로 문자메시지를 날려 여론조사에 대응하고 있다"고 이번 여론조사에 불만을 표시했다.

또 다른 의원은 "앞서 진행된 후보 적합도 조사를 했으면서도 현역 의원만 대상으로 한 재지 지 여부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현역 의원 물갈이를 겨냥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당이 스스로 경선 불공정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고 비난했다.

이어 "경선 후보 선정을 위한 후보 적합도 조사와 현장 실사에서 현역 의원들의 평가가 잘 나오니, 대놓고 현역 의원 재지 지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역 의원 '찍어내기'를 위한 명분 만들기 아니냐"고 평가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6일로 예정된 총선 후보자 심사 결과 발표 전 현역 평가 하위 20%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를 하는 등 본격적인 '공천 배제'(컷오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당 공관위원회는 일률적인 컷오프를 시행하지 않는 대신 하위 평가자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했다. 의정 활동과 당 기여도 등 현역 의원 평가 결과에 따라 '하위 20%' 의원들을 분류하고, 하위 20%는 경선 득표수 20%, 최하위 10%는 득표수 최대 30% 감산 페널티를 부여하게 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지난 31일 카타르 알라이안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16강전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경기에서 승부차기 승리를 거둔 대표팀 선수들이 8강 진출을 확정짓고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99분에 터진 골' 한국 기적의 8강



AFC ASIAN CUP QATAR 2023

'클린스만호'가 64년 만의 아시안컵 우승을 위해 가시밭길을 걷는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지난 31일 열린 사우디아라비아와의 2023 아시아 축구연맹(AFC) 아시안컵 16강전에서 승부차기 접전 끝에 4-2 승리를 거두고, 8강에 진출했다. <관련기사 18면> 0-0으로 전반전을 끝낸 한국은 후반 시작 1분 만에 선제골을 허용했다. 알다우사리의 침투 패스를 받은 압둘라 라디프가 왼발 땅볼 슈팅으로 한국의 골대를 뚫었다. 이후 한국이 만회 골을 위해 공세에 나섰다지만 번번히 상대 수비에 막혔다. 약속된 90분이 모두 흘러가고 10분의 추가 시간이 주어졌지만 기다렸던 골이 나오지 않았다. 패

사우디에 승부차기 끝 승리
3일 새벽 호주와 4강 다툼

색이 짙었던 후반 54분, 골 결정력에서 아쉬움을 남기며 팬들의 원성을 샀던 조규성이 속죄골을 터트렸다. 오른쪽에서 김태환이 왼발로 올려준 공이 골대 왼쪽에 있던 설영우의 머리로 향했다. 이어 설영우의 헤더 패스를 받은 조규성이 머리로 골망을 흔들어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연장전에 돌입한 두 팀은 팽팽한 기싸움 끝에 승부차기까지 가는 운명을 맞았다. 말레이시아와의 3차전에서 3골을 내주며 고개를 숙였던 골키퍼 조현우가 이번에는 승리의 주역이 됐다.

조현우는 사우디의 3번째 키커 사미 알나즈이, 4번째 키커 압두르라흐만 가리브의 슈팅을 연달아 막아내면서 4-2 승리를 이끌었다.

한국은 오는 3일 0시 30분 호주와 4강 진출을 다툰다.

우여곡절 클린스만호가 8강 티켓을 거머쥐었지만 경기력과 경고 카드는 우승 도전의 속제로 남았다.

한국은 역대급 멤버를 과시하면서 64년 만의 우승 탈환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비레인과 조별리그 1차전 3-1 승리 이후, 3무에 그치고 있다. 요르단(2-2)과 말레이시아(3-3)전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와도 승부를 가리지 못해 승부차기까지 가는 혈전을 벌였다.

여기에 4경기를 치르는 동안 무려 10명의 선수가 경고카드를 받으면서 우승 도전에 비상이 걸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 | |
|-----------------------|------|
| 애물단지 된 옛 광주 동구청사 어찌나 | ▶6면 |
| KIA 영건들 '제2의 최지민' 꿈꾼다 | ▶18면 |
| 팔도 핫플레이스 - 광양 배알도 | ▶22면 |

NEW

2weeks
고함양 고함도 레티놀이 분기된
말자 주름 2주만에 개선
IOPE LAB

슈퍼레티놀 단 2주만에 주름잡다

| 아이오페 레티놀 엑스퍼트 0.1% |

주름을 위한 당신의 노력을,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요?
이제, 주름보다 강한 슈퍼레티놀로
확실한 주름 개선 효과를 느껴보세요

레티놀은 아이오페

IOPE

*인·40-50세 성인 여성(대상) 2019.08.16-10.17 30명(이)피부임상연구센터
고려상담실 080-023-5454 | www.iope.com